

웹툰·게임·애니·실감콘텐츠...광주서 콘텐츠 인재 양성

'GCC 사관학교' 설립...돌배·마인드C 등 전문 강사진 대거 포진 전국 청년 150명 무료 교육...14일 서울·20일 광주서 입학 설명회

광주시에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이어 글로벌 문화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운영한다. 특히 MZ세대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웹툰 창작자 양성 과정에는 텍스터 등 콘텐츠 분야 우수 기업 80여곳과 돌배, 마인드C 등 전문 작가들도 강사진으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150명을 모집해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1기를 운영

한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서울, 20일 광주에서 입학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입교 신청은 28일까지 GCC 사관학교 누리집(<https://www.gccaca.kr/>)에서 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출석 일수에 따라 매달 최대 4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원한다. 또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

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이다.

1기 교육은 3월 11일 개강하며, 8개월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18-39세의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 미취업자(유학생 포함) 150명이다.

교육과정은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이며, 기본, 중·고급, 팀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1000시간)로 실시된다.

실감콘텐츠 분야는 ICVFX 엔지니어 양성과정

과 ICVFX 3D 레벨 디자이너 과정 2트랙으로 나뉘며, 언리얼 엔진 기초, 실감형 콘텐츠 영상 기획 등을 교육한다. 게임 분야는 2024년 게임시장 수요를 반영해 언리얼엔진 기반 멀티플랫폼 게임 개발자 양성 과정으로 운영한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마야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델링과 애셋(Modeling & Asset) / 애니메이션(Animation)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본과정으로 공통 교육이 있으며, 중·고급 과정부터 희망 직무에 따라 분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웹툰 분야는 클립 스튜디오 활용, 기획, 드로잉 심화 등을 교육하는 웹툰 콘텐츠 창작자 양성 과정

으로, 제작자 취업 및 또는 작가 지망생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텍스터, 엑스온, 웨스트월드 등 80여 개의 콘텐츠 분야 우수 기업이 참여해 기업 프로젝트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하며, 돌배, 마인드C 작가 등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과 전문가 멘토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수강생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초청 현장 실무자 특강 및 멘토링,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페스티벌(취·창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인증 라이선스 취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수료생 중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프로젝트(인턴십) 과정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독도 체험관 새단장
광주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지하의 독도전시관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1일 독도체험관으로 새롭게 개관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독도체험관은 '지금 현재 독도'와 '독도의 자연', '독도의 역사', '독도 체험'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4월 문 연다

통역·고충 상담·교류활동 등 체류지원 서비스

광주시가 오는 4월부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재개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및 고충상담 ▲한국어, 정보화, 법률 등 생활 관련 교육 ▲한국 문화 체험 및 국가별 문화 행사 지원 ▲커뮤니티 및 내·외국인 교류 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등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에게 종합적인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광주시는 오는 4월부터 국·시비 4억원을 투입해 작년 말 운영을 중단한 광산구 소재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재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에선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적응을 위한 주말 한국어 교육과 고충상담 등을 진행하고, 문화·복지사업 지원, 선주민과의 상

생·통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기관 협업 체계 및 민간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취업컨설팅, 외국인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상담 등 체계적인 체류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외국인근로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한식업 주방보조원 신규 업종 허용 등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인근로자가 광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지방하천 정비 1047억 투입

상반기 예산 60% 신속 집행

전남도가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1047억원을 확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활력 증진을 위해 6월 말까지 628억원(60%)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7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23억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65개 하천재해예방사업(928억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개 지구(96억원) 등이 올해 주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하천의 홍수 방어 능력을 강화해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고,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안전한 하천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기후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는 대규모 인명, 사회·경제

적 피해를 가져오며 그 규모와 피해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홍수 대응 능력 향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하천 개수율을 높이기 위해 하천정비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어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그 결과 지난해 황룡강과 순천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국가 재정을 투입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큰 힘이 됐다.

또 전남도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하천 정비 예산을 확보했다. 신규 지구의 조속한 하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농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설계심의 등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고, 용지보상 우수지구를 우선 발주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시군·대학, 교육발전특구 지정 협력

전남도가 혁신적인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미래를 개척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6개 시·군, 교육청, 11개 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1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전남도교육청, 6개 시·군, 11개 대학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전남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교육공동체로 뭉쳐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지역 스스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약에는 목포·나주시와 강진·영암·무안·신안군

등 6개 시·군과 한국에너지공단, 목포·목포해양대, 동신대, 한국폴리텍대 전남캠퍼스, 동아보건대, 목포가톨릭대, 목포과학대, 세한대, 초당대 등 11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교육 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시·군별 특색이 반영된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개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9일까지 1차 공모를 통해 3월께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자체는 3년 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개혁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전국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정리: 이은이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이은이 | 조선의
퍼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